

보도 희망 일시	제한없음(즉시)
문의	정치외교학부 권형기 교수 (02-880 6340)

배포일: 2025.3.5.(수)

정치외교학부 권형기 교수, 세계정치학회 '칼 도이치 상' 수상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권형기 교수가 아시아 정치학자 중 최초로 2025년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이하 'IPSA')가 수여하는 '칼 도이치상(Karl Deutsch Award)'의 열두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세계정치학회장을 역임한 칼 도이치 전 하버드대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처음 제정된 칼 도이치상은 세계정치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정치학자에게 수여된다. 역대 수상자로는 정치학 분야에서 굵직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되는 가브리엘 알몬드(Gabriel Almond), 후안 린츠(Juan Linz), 찰스 킬리(Charles Tilly), 지오반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 피파 노리스 (Pippa Norris), 로버트 퍼트남 (Robert Putnam) 등이 있다. 수상자는 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수상 기념 강연을 하게 되며, 상금은 1,000달러다.
- 아시아 정치학자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권형기 교수가 처음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와 석사 졸업 후 2002년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권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

는 비교정치, 정치이론,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부터 졸업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선진국의 거버넌스 체제가 세계화 흐름에 적응하는 다양한 방식에 주목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개방과 조정>(Openness and Coordination: National Economies of the U.S., Japan, and Germany in a Globalized World (Palgrave Macmillan, 2024), <경쟁을 통한 변화>(Changes by Competition: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세계화 시대의 역행 : 자유주의에서 사회협약의 정치로>(서울: 후마니타스, 2014), <시장사회에서의 공정과 노동분업>(Fairness and Division of Labor in Market Societies (Berghahn Books, 2004) 등이 있으며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 권형기 교수는 오는 7월 14일(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5년 IPSA 세계정치학 대회에서 ‘개방과 조정: 세계화 시대에서의 미국, 일본, 독일의 국민경제 (Openness and Coordination: National Economies of the U.S., Japan, and Germany in a Globalized World)’ 를 제목으로 수상 기념 강연을 할 예정이다. 세계정치학회는 “권형기 교수는 기업의 세계화가 일국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혁신과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 권형기 교수는 “역대 수상자를 보면 사실 제게 엄청나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과분한 상이라 정말 무겁게 느낀다.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7월 예정 강연 요약 >

본 강연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시대에 해체 위기에 직면

한 국민경제를 다시 재구성하는 유효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 경제의 주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 조직을 재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국 중심의 생산체제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는 개별 기업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 사이에는 심각한 긴장을 초래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낙관론과 민족주의적 비관론과는 달리, 세계화는 국민경제의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나 혹은 국민경제의 공동화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글로벌화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기업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어떤 국가는 자국 내 혁신과 생산 능력을 향상하는 데 성공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그렇지 못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본 강연은 성공의 결정적 요인으로 산업 공유재 (industrial commons)를 강조한다. 기업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공유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내 행위자들의 조정 정치 (politics of coordination)에 달려 있다. 본 강연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미국, 국가주의 모델인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적 조정 모델인 독일 등 다양한 경제 체제를 대표하는 세 나라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재구성했는지 분석한다. 본 강연에서 수상자는 ‘무임승차 문제’ (free-rider problem)를 해결하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집단 행동을 조정하는 조정의 정치가 정치경제체제마다 다르다고 주장한다. 본 강연자는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폐쇄적인 구조는 유연한 적응을 방해하고 산업 공유재를 낙후되게 만든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정 없는 단순한 개방은 산업 공유재의 손실을 초래하기 쉽다. 본 강연은 핵심적으로 국민경제가 더 개방되고 더 분권화될수록 더 많은 정치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강조한다.